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ime Us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수료 박은정**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 Kim, Oi-Sook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Doctoral Candidate : Park, Eun-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ime us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sources were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2009 ATUS (American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Labor Statistics Division in the U.S.. 1,734 Korean diaries (1,311 on weekdays and 423 on Sundays) and 321 American diaries (208 on weekdays and 113 on Sundays) from high school students of 15 to 18 years of age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time use patterns of Korean students on weekdays and Sundays were different than those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On weekdays and Sundays, the sleeping time of Korean students was 2 hours less than the time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Koreans studied more, nearly double the time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on weekdays and five times more on Sundays. The study-oriented time allocation of Korean students resulted in less leisure time than the American students. Korean students spent their leisure time of more than 30 minutes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media, and hobbies, and their time allocation to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activities were nil. On Sundays, the time for studying by Korean students was more than five times longer than that spending by their American counterparts. Koreans used their leisure time of 6 hours and 47 minutes mainly for media, hobbies and social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rate of volunteering by Korean students was only 0.5%, though it was 31.0% for the Americans.

For a study-life balance for Korean students, it was recommended that trends toward time management and social policy should increase the time allocation to sleeping, housework, work, sports, and volunteering and decrease the time use in studying and hobbies.

▲주요어(Key Words) : 시간사용(time use),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 한국(Korea), 미국(America)

* 주저자 : 김외숙 (E-mail : kimos@knou.ac.kr)

** 교신저자 : 박은정 (E-mail : dana060107@naver.com)

I. 서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동일하게 주어지고, 축적되지 않으며,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으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시간의 특성에 따라 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이기영·김의숙, 2009). 생활시간이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내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시간은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 생활조건 등을 반영하므로 생활시간의 비교를 통해 국가간의 생활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인간발달 단계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는데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동해 가는 변화의 시기로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적 향상과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오는 학습스트레스, 사교육의 만연, 부족한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부족 등 불균형한 생활시간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주관적인 만족감이 23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밝혀진 결과나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의 자살률에서 확인되고 있다(Park et al., 2010).

청소년은 성별, 연령, 학교급 등에 따라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학업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습활동이 생활시간의 주요부분이 되고 나머지 활동영역은 상당히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즉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습시간이 가장 많아가사노동, 수면 등 다른 영역의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가시간은 주로 TV시청, 컴퓨터게임, 교제활동 위주의 소극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Oh, 2005a; 2005b, 김기현·이경상, 2006; Oh, 2010). 적정시간의 수면이 신체적 발달 및 기억과 학습 그리고 정서적 건강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가 생활기술 습득과 협동심 및 소속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이기영·김의숙, 2009)는 점에서 생활영역별 조화로운 시간사용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은 시간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영역별 편중이 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생의 학습에 치중된 시간사용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청소년의 시간사용이 적응 문제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Fuligni & Stevenson, 1995)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시간의 구조를 수량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청소년의 특징적인 생활 모습을 밝힐 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국가와의 생활시간 비교를 통해 이들의 생활세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청소년 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연구는 비교대상국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는 주로 생활시간 실태 및 관련변수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Choi, 1991; Kim, 1994; Kim & Kim, 2000; Choi & You, 2002; 김기현·이경상, 2006; Yoo, 2007; Park & Son, 2007; Oh, 2010; Han, 2010), 외국 청소년과 비교한 국제비교 연구(Lee, et al., 2002; 김기현 등, 2009)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제비교 연구 중 Lee, et al.(2002)의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각국의 자료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여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고, 김기현 등(2009)의 연구는 비교 국가의 15~24세의 학생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국가별로 활동분류 체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자료는 원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된 통계치를 사용하였고, 원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활동분류체계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의 정밀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시간사용의 영역별 부조화가 가장 심한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한국 학생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 고등학생과 비교하기로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미국을 선정한 이유는 미국이 동양과 구분되는 서구사회의 대표적인 한 예라는 점과 함께 2003년부터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생활시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발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사연도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적정성 및 자료사용의 편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였다.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각국의 대표성을 갖는 동일한 시기의 자료와 통일된 활동분류체계에 근거한 분석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과 미국의 정부통계기관이 각각 조사한 대규모 생활시간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활동분류체계를 통일하여 양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양국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연구의 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1. 청소년의 생활시간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는 주로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분석한 것으로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의 시간측정 방법과 활동분류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생활시간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것과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시간자료를 수집한 경우 활동분류방법이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경향을 보이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활동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연구목적에 맞추어 일부 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Kim(1994), Kim and Kim(2000), Choi and You(2002), Kang and Kim(2005), Na et al.(200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수집한 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행동을 분류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또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거나 시간사용의 특성들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는 시간유형을 생리적 시간, 학업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등으로 분류하여 시간배분을 분석한 결과 평일은 휴일에 비해 학업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으며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징을 밝혔다. Kim(1994), Kim and Kim(2000), Choi and You(2002), Kang and Kim(2005)의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행동을 분류하고 시간사용을 조사·분석한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소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전국의 중·고등학생 2,21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내용 및 시간사용을 조사한 Na et al.(2005)의 연구는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조사에 포함된 행동이 방과 후 생활내용과 인터넷 이용에 한정됨으로써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시간 전체를 파악하고 행동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1999년부터 통계청이 5년 주기로 국민생활시간을 조사해 오면서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

교급 비교나 각각의 대상에 대한 시간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Oh, 2005a; 2005b, 김기현·이경상, 2006; Oh, 2010). Oh(2005a; 2005b)는 1999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대학생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에 대한 활용실태와 변화추이를 1999년 자료와 비교하였고(Oh, 2010), 김기현과 이경상(2006)은 청소년의 범위를 10~24세로 확대하여 학생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니트 청소년(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고등학생의 시간사용과 관련된 특징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습시간이 가장 많아 다른 영역의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가시간은 주로 TV시청, 컴퓨터게임, 교제활동 위주의 소극적 활동에 사용되었고, 봉사활동시간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2.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변수는 성별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Kim, 2005)에서 생리적 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리적 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h(2010)는 초·중·고·대학생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봉사활동과 기타활동에 대한 시간소비가 많고 남학생은 교제시간을 많이 갖는 것으로 밝혔으며 개인유지, 학습 및 일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시간구조를 연구한 Kim(1994)은 생리적 생활, 학업 생활, 아르바이트, 가사노동, 사회문화적 생활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학업시간에서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에서만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일 학업시간이 58분 더 많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0분, 53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미국 청소년의 시간사용 패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연구(Gager, Cooney, & Call, 1997; Porterfield & Winkler, 2007)에서 남학생은 가사노동 시간이 적은 반면 노동, 스포츠, 영화감상 시간이 더 많고 여학생은 과제활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령보다 학교급을 주요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에 학교급 차이가 밝혀졌다. 학습시간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점차 적어졌고, 반대로 여가시간은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점차 적어지는 결과를 보였다(김기현·이경상, 2006; Oh, 2005a; 2010). 청소년의 생활시간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1999년과 2004년 모두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교급 학생들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고 교제 및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Oh, 2010).

동일한 학교급에서 학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주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Kim, 2005)에서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의 영역에서는 학년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리적 시간은 5학년이 더 많은 반면 여가시간은 6학년이 더 많았다.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분석(Kim & Kim, 2000)에서는 학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서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평일과 주말 모두 2학년의 학업시간이 가장 많았고,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다른 학년보다 적었다. 가사노동시간은 4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시간사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Oh, 2010)에서 지역 변수는 개인유지, 학습과 일, 봉사활동, 교제여가, 기타활동 등 모든 영역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개인유지와 봉사활동은 농어촌지역, 학습과 일은 6대 광역시와 중소도시, 교제여가는 서울지역에서, 기타활동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Kim, 2005)에서는 학습시간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 반면 여가활동은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고, 도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생리적 시간 사용이 더 많았다.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이 감소하는 zero-sum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인의 경우 취업여부가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Kalenkoski and Pabilonia(2009)의 연구에서 비취업 청소년이 취업 청소년보다 과제, 특별활동, 스포츠, 수면, TV시청, 영화, 게임 등의 활동시간이 많은 점이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생활

시간을 국제비교한 김기현 등(2009)의 연구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률이 서구와 비교해 아주 낮은 관계로 청소년의 생활시간연구에서 취업여부 변수가 다른 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등이 분석된 연구가 많으며, 그 외 가족형태(Gager, Cooney, & Call, 1997; kalenkoski & Pabilonia, 2009)나 부모의 교육수준(Gager, Cooney, & Call, 1997; Porterfield & Winkler, 2007; kalenkoski & Pabilonia, 2009)과 같은 가족배경도 시간사용의 관련변수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3.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생활시간 비교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생활시간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과 미국 가족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Lee et al.(2002)의 연구는 한국 서울과 미국 유타주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연구이다. 한국과 미국 학생들은 생활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들의 상이한 생활방식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자녀는 많은 학업시간과 이동시간으로 인해 집에서의 가사노동시간이 거의 없고 여가시간도 아주 적어 생활의 불균형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학업에 보내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이나 수입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학업, 노동, 여가가 비교적 균형을 이룬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 및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각국의 자료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여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대상국들-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패턴을 비교한 연구로는 김기현 등(200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밝혀진 한국 학생의 특징을 보면, 수면과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2~18세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평일 평균 9시간이 넘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시간이 늘어나 18세의 경우 평일 평균 1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편중된 시간사용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국가의 15~24세의 학생 및 취업자

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국가별로 활동분류 체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자료는 원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된 통계치를 사용하였고, 원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활동분류체계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의 정밀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비교한 연구(Fuligni & Stevenson, 1995)에 의하면, 아시아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 학습활동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며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유시간 이용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생의 시간사용 방법은 적응문제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의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 및 문화권별 차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시기도 학교급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생활세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학교급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대표성을 갖는 동일한 시기의 자료를 이용할 뿐 아니라 통일된 활동분류 체계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과 미국의 정부통계기관이 각각 조사한 대규모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양국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시간배분 실태는 어떠한가?

[1-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평균시간은 어떠한가?

[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행위자 비율은 어떠한가?

[1-3]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행위자 평균시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시간배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평균시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행위자 비율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행위자평균 시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실시한 '2009년 ATUS(American Time Use Survey)'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9년부터 5년마다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 3차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응답자당 2일씩 10분 간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2003년부터 노동통계국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2009년 ATUS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응답자당 1일의 시간을 조사하는데 15세 이상 조사대상 개인에게 조사원이 전화면접하기 전날 새벽 4시부터 전화하는 날 새벽 4시까지의 행동 중 5분 이상 지속된 행동을 조사자가 전화로 질문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각국 모두 15~18세의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시간분석자료는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일지로서 한국의 1,734(평일 1,311, 일요일 423)부와 미국의 321(평일 208, 일요일 113)부이다. 분석대상 행동은 '동시행동'을 제외한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양국의 비교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합하였고, 활동분류체계는 한국과 미국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한 김외숙 등(2005)의 연구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생활시간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으로 대분류하였으며, 필수생활시간에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를 포함시켰고, 의무생활시간에는 노동, 학습, 가사노동을 포함시켰다. 여가시간에는 미디어 이용, 교제, 취미, 스포츠, 참여봉사, 종교, 기타여가, 기타(일지 기록 등)를 포함시켰다. 생활시간의 양국비교를 위한 행동분류체계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의 분류와 달리 분류된 항목은 '쇼핑 및 서비스 이용'과 '이동' 등이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통계청의 분류보다 상당히 활동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전문적 개인 돌봄 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시민의무'와 같은 항목 등이 다양한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Variables | | Weekdays | | | | Sundays | | | |
|-------------------|------------|-----------------|------|--------------|------|---------------|------|--------------|------|
| | | Korea (N=1,311) | | U.S. (N=208) | | Korea (N=423) | | U.S. (N=113) | |
| | | N | % | N | % | N | % | N | % |
| Sex | Male | 647 | 49.4 | 103 | 49.5 | 219 | 51.8 | 58 | 51.3 |
| | Female | 664 | 50.6 | 106 | 50.5 | 204 | 48.2 | 55 | 48.7 |
| Age | 15 | 309 | 23.6 | 30 | 14.4 | 100 | 23.6 | 27 | 23.9 |
| | 16 | 472 | 36.0 | 96 | 46.2 | 147 | 34.8 | 35 | 31.0 |
| | 17 | 423 | 32.3 | 59 | 28.4 | 144 | 34.0 | 42 | 37.2 |
| | 18 | 107 | 8.2 | 23 | 11.1 | 32 | 7.6 | 9 | 8.0 |
| | Mean | 16.2 | | 16.3 | | 16.2 | | 16.3 | |
| Employment status | Employed | 17 | 1.3 | 48 | 23.1 | 8 | 1.9 | 34 | 30.1 |
| | Unemployed | 1,294 | 98.7 | 160 | 76.9 | 415 | 98.1 | 79 | 69.9 |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양국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값을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양국 모두 평일과 일요일에 남녀 각각 반 정도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연령과 취업여부는 양국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령은 양국이 약간 다른 분포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16~17세가 7할 정도 되는 공통성이 있고, 평균연령이 한국이 16.2세, 미국이 16.3세로 유사하다. 양국의 조사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취업여부이다. 한국은 요일을 불문하고 취업한 학생이 2% 미만의 극소수인데 비하여 미국은 취업한 비율이 평일 23%, 일요일 30%로 학교에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IV.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실태 및 차이를 '활동별 평균시간'과 '행위자비용 및 행위자평균시간'으로 나누어 요일별(평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평균시간

1) 평일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평균시간을 대분류 영역

및 세부활동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대분류 영역별 평균시간을 t-test한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양국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은 한국 9시간 33분(1일 24시간의 39.9%), 미국 10시간 31분(43.8%)으로 미국이 58분 더 많았으며, 의무생활시간은 한국 12시간 13분(50.9%), 미국 7시간 49분(32.5%)으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시간 24분이나 월등히 많은 반면 여가시간은 한국의 경우 2시간 12분(9.2%), 미국은 5시간 42분(23.9%)으로 한국이 3시간 30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은 의무생활시간이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가시간은 의무생활시간의 약 1/6 수준인 데 비하여 미국 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의무생활시간의 약 7할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들의 상이한 시간사용방식을 알 수 있다.

각 영역을 세부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필수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관리의 세 활동 모두에서 양국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한국 6시간 41분, 미국 8시간 39분으로 한국이 1시간 58분 더 적은 반면 식사시간과 기타 개인관리에는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시간의 경우 한국 학생은 1시간 32분, 미국 학생은 1시간 2분으로 한국이 30분 더 많고, 기타 개인관리시간에서도 수면시간과 동일하게 한국(1시간 20분)이 미국(50분)보다 30분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필수생활시간에서 한국과 미국 학생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의무생활시간이다. 학습, 가사노동, 노동의 모든 세부활동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시간량의 차이

Table 2. Average Time Spent on Activities (Weekdays)

(Unit: Minute, %)

| Activity | Korea (N=1,311) | | U.S. (N=208) | | Difference (Korea-U.S.) | | t |
|----------------------|--------------------|------|-----------------|------|----------------------------|-------|-----------|
| | Mean | % | Mean | % | Mean | % | |
| Necessary | 573 | 39.9 | 631 | 43.8 | -58 | -3.9 | 6.631*** |
| Sleeping | 401 | 27.9 | 519 | 36.0 | -118 | -8.1 | 13.420*** |
| Eating/Drinking | 92 | 6.4 | 62 | 4.3 | +30 | +2.1 | 9.739*** |
| Other Personal Care | 80 | 5.6 | 50 | 3.5 | +30 | +2.1 | 12.106*** |
| Obligation | 733 | 50.9 | 469 | 32.5 | +264 | +18.4 | 17.141*** |
| Study | 726 | 50.5 | 386 | 26.8 | +340 | +23.7 | 22.318*** |
| Household Work | 5 | 0.3 | 58 | 4.0 | -53 | -3.7 | 8.287*** |
| Work | 2 | 0.1 | 25 | 1.7 | -23 | -1.6 | 3.976*** |
| Leisure | 132 | 9.2 | 342 | 23.9 | -210 | -14.7 | 15.326*** |
| Media | 34 | 2.4 | 144 | 10.0 | -110 | -7.6 | 12.108*** |
| Social activities | 49 | 3.4 | 57 | 4.0 | -8 | -0.6 | 1.271 |
| Hobbies | 30 | 2.1 | 40 | 2.8 | -10 | -0.7 | 1.644 |
| Sports | 8 | 0.6 | 47 | 3.3 | -39 | -2.7 | 5.528*** |
| Volunteer activities | 0 | 0.0 | 21 | 1.5 | -21 | -1.5 | 4.576*** |
| Religious activities | 0 | 0.0 | 1 | 0.1 | -1 | -0.1 | 1.297 |
| Other leisure | 1 | 0.1 | 12 | 0.8 | -11 | -0.7 | 4.883*** |
| Etc | 10 | 0.7 | 20 | 1.4 | -10 | -0.7 | 2.323* |

* $p < .05$, *** $p < .001$

도 상당히 크다. 먼저 학습시간을 보면 한국은 12시간 6분으로 하루 절반 이상(50.5%)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6시간 26분으로 한국의 반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 가사노동시간도 양국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5분에 불과하나 미국은 58분으로 한국 학생의 11배 이상이다. 노동시간도 한국은 2분으로 극히 적은 데 반하여 미국은 21분으로 한국의 10배 이상을 보인다. 즉, 학습, 가사노동, 노동을 포함하는 의무생활시간에서 한국과 미국 학생의 생활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특히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보다 학습시간은 1.8배 많지만 가사노동 및 노동 시간은 미국 학생의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의무생활시간이 거의 학습시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은 의무생활시간과 반대로 미국 학생이 더 많다. 세부활동별로 보면, 미디어이용, 스포츠, 참여봉사활동, 기타 여가, 기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교제, 취미, 종교활동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이용은 한국 34분, 미국 2시간 24분으로 1시간 50분의 큰 격차를 보이는데 시간량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여가시간 중 미디어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있어서도 미국(42%)이 한국(26%)보

다 1.6배 더 높았다. 스포츠도 한국은 8분인데 미국은 47분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5.9배, 39분 더 많았고, 참여봉사활동을 보면, 한국은 0분인데 비하여 미국은 21분을 보여 평일에도 미국 학생의 참여봉사활동시간이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2) 일요일

<Table 3>에서 먼저 대분류를 보면, 일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양국 모두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의무생활시간은 감소하였으며, 평일과 마찬가지로 세 영역 모두에서 양국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필수생활시간은 한국 11시간 59분(49.9%), 미국 12시간 57분(53.8%)인데 양국 모두 평일에 비해 2시간 26분씩 증가한 시간이다. 일요일에도 필수생활시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58분 적는데 이는 평일의 차이와 동일한 시간량이다. 일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은 한국 5시간 10분(21.5%), 미국 3시간 4분(12.7%)으로 평일과 비교할 때 한국과 미국이 각각 7시간 3분, 4시간 45분 감소하였으며, 평일 시간의 42%, 39%로 시간량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의 감소폭이 더 컸지만 감소비율로 볼 때는 미국 학생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일요일에도 한국

Table 3. Average Time Spent on Activities (Sundays)

(Unit: Minute, %)

| Activity | Korea (N=423) | | U.S. (N=113) | | Difference (Korea-U.S.) | | t |
|----------------------|------------------|------|-----------------|------|----------------------------|------|-----------|
| | Mean | % | Mean | % | Mean | % | |
| Necessary | 719 | 49.9 | 777 | 53.8 | -58 | -3.9 | 4.583*** |
| Sleeping | 541 | 37.5 | 668 | 46.2 | -127 | -8.7 | 10.294*** |
| Eating/Drinking | 95 | 6.6 | 63 | 4.4 | +32 | +2.2 | 6.273*** |
| Other Personal Care | 83 | 5.8 | 46 | 3.2 | +37 | +2.6 | 8.450*** |
| Obligation | 310 | 21.5 | 184 | 12.7 | +125 | +8.8 | 6.301*** |
| Study | 271 | 18.8 | 54 | 3.7 | +217 | +6.1 | 15.072*** |
| Household Work | 33 | 2.3 | 90 | 6.2 | -57 | -3.9 | 4.719*** |
| Work | 6 | 0.4 | 40 | 2.8 | -34 | -2.4 | 3.125*** |
| Leisure | 412 | 28.6 | 484 | 33.5 | -72 | -4.9 | 3.468*** |
| Media | 166 | 11.5 | 198 | 13.7 | -32 | -2.2 | 1.884 |
| Social activities | 51 | 3.5 | 75 | 5.2 | -24 | -1.7 | 1.932 |
| Hobbies | 115 | 8.0 | 45 | 3.1 | +70 | +4.9 | 7.011*** |
| Sports | 19 | 1.3 | 54 | 3.7 | -35 | -2.4 | 3.781*** |
| Volunteer activities | 2 | 0.1 | 33 | 2.3 | -31 | -2.2 | 4.063*** |
| Religious activities | 34 | 2.4 | 36 | 2.5 | -2 | -0.1 | 0.031 |
| Other leisure | 9 | 0.6 | 24 | 1.7 | -15 | -1.1 | 2.377* |
| Etc | 16 | 1.1 | 19 | 1.3 | -3 | -0.8 | 0.757 |

* $p < .05$, *** $p < .001$

학생의 의무생활시간은 미국 학생보다 2시간 5분 더 많았다.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한국 6시간 52분(28.6%), 미국 8시간 4분(33.5%)으로 양국 모두 평일보다 증가하였다(한국 4시간 40분, 3.1배 증가, 미국 2시간 22분, 1.4배 증가). 평일과 비교할 때 한국이 시간량 및 비율 모두 미국보다 더 증가하였으나 일요일의 여가시간 자체로 볼 때는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에 비해 1시간 12분 더 적은 여가를 보낸다. 활동영역별로 평일과 일요일의 양국간 시간차이를 비교하면 필수생활시간은 평일과 일요일이 동일하게 한국 학생이 약 1시간 정도 적지만,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에 비해 양국 학생의 시간차이가 감소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감소는 한국 학생의 요일별 차이가 더 큰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활동별로 보면, 필수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수면, 식사, 기타 개인관리 모두에서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양국 모두 평일에 비해 2시간 이상(한국 2시간 20분, 미국 2시간 29분)의 증가를 보여 한국 9시간 1분, 미국 11시간 8분으로 평일과 유사하게 미국이 2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보다 2시간 이상의 증가를

보인 수면시간과 달리 식사시간은 양국에서 1~3분의 증가를 보였고, 기타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한국 학생은 일요일에 3분 증가한 반면 미국 학생의 경우 오히려 4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식사시간, 기타 개인유지시간의 양국 차이는 각각 32분, 37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2분, 7분 증가하였으나 수면시간과 비교할 때 증가량 및 증가비율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학습, 가사노동, 노동시간의 모든 세부활동에서도 한국과 미국 학생의 시간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을 보면, 한국 학생의 경우 일요일에도 4시간 31분으로 미국 학생의 54분보다 3시간 37분 더 많은 시간을 보였다. 일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학습시간이 한국과 미국이 각각 7시간 35분, 5시간 32분씩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나 한국 학생의 일요일 학습시간이 미국보다 5배 이상 높아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도 양국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33분, 미국 1시간 30분으로 평일에 비해 한국 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미국 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은 학업시간보다 많으며 한국 학생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은

6분에 불과하나 미국은 40분으로 평일보다 더 많은, 34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학생의 학습시간이 평일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볼 때 한국 학생은 일요일에도 학습에 편중된 시간배분을 보이는데 비해 미국 학생의 경우 일요일에는 의무생활시간 중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고 학습과 노동을 합한 시간이 가사노동시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다양한 영역의 의무생활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을 보면, 취미활동, 스포츠, 참여봉사활동, 기타여가에서 양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미디어, 교제 활동, 종교활동, 기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취미활동을 보면, 한국 1시간 55분, 미국 45분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1시간 10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보다 한국은 1시간 25분이나 대폭 증가하였고 미국은 5분만 증가하였다. 그 결과 평일에는 미국 학생의 취미활동시간이 한국 학생보다 10분 많았으나 일요일에는 오히려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70분이나 더 많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스포츠를 보면, 한국의 경우 평일보다 11분 증가한 19분, 미국은 평일보다 7분 증가한 54분으로 미국 학생

의 일요일 스포츠시간이 평일과 유사하게 한국 학생보다 35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봉사시간의 경우 한국은 2분에 불과하나 미국은 33분으로 한국보다 30분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이 평일에는 평균 0인 점과 비교하면 일요일에 큰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 학생과 비교할 때는 요일과 관계없이 매우 미흡한 점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활동별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

1) 평일

한·미 고등학생의 평일 활동별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은 <Table 4>와 같다.

먼저 대분류를 보면 필수생활시간의 경우 행위자비율이 양국 모두 100%로서 동일하고 따라서 행위자평균시간도 전체 평균시간과 동일하다. 의무생활시간에 있어서는 99.9%인 한국에 비해 미국은 96.6%로 의무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 3.3%p 더 많으며, 여가시간에서는 한국이 99.3%, 미국이 98.1%로 1.2%p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행위자만의 평균

Table 4. Participation Rates in Activities and Participant Average Time Spent on Activities (Weekdays) (Unit: %, Minute)

| Activity | Korea | | U.S. | | Difference (Korea-U.S.) | |
|----------------------|-------|------|-------|------|-------------------------|------|
| | Rate | Mean | Rate | Mean | Rate | Mean |
| Necessary | 100.0 | 572 | 100.0 | 631 | 0.0 | -59 |
| Sleeping | 100.0 | 401 | 100.0 | 519 | 0.0 | -118 |
| Eating/Drinking | 100.0 | 92 | 99.0 | 63 | +1.0 | +29 |
| Other Personal Care | 99.9 | 80 | 92.3 | 54 | +7.6 | +28 |
| Obligation | 99.9 | 733 | 96.6 | 485 | +3.3 | +248 |
| Study | 99.8 | 728 | 84.1 | 459 | +15.7 | +269 |
| Household Work | 18.5 | 28 | 68.3 | 85 | -49.8 | -57 |
| Work | 0.9 | 173 | 13.0 | 192 | -12.1 | -10 |
| Leisure | 99.3 | 134 | 98.1 | 350 | -1.2 | -216 |
| Media | 53.9 | 64 | 82.7 | 174 | -28.8 | -110 |
| Social activities | 93.1 | 52 | 56.3 | 100 | -36.8 | -48 |
| Hobbies | 50.4 | 60 | 38.0 | 106 | -12.4 | -46 |
| Sports | 20.6 | 39 | 29.3 | 159 | -8.7 | -120 |
| Volunteer activities | 0.2 | 15 | 27.9 | 77 | -27.7 | -62 |
| Religious activities | 0.3 | 78 | 2.4 | 48 | -2.1 | +30 |
| Other leisure | 2.1 | 40 | 30.8 | 40 | -28.7 | 0 |
| Etc | 50.6 | 20 | 22.6 | 88 | +28.0 | -68 |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의무활동의 경우 한국 12시간 13분, 미국 8시간 5분으로 한국 학생의 경우 전체평균시간과 동일하나 미국 학생의 의무활동시간은 전체평균시간보다 16분 증가하여, 양국간 차이는 4시간 8분으로 전체평균시간 차이보다 16분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의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2시간 14분, 미국 5시간 50분으로 미국 학생의 행위자평균시간이 3시간 36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활동별로 볼 때 필수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식사시간에서 미국 학생의 행위자비율이 99%로 나타나 1%의 학생은 5분 이상의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식사를 주행동이 아닌 동시행동으로 했음을 알 수 있고, 기타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미국 학생의 약 8%가 세면, 목욕, 배변 등 기타 개인유지활동을 5분 이상 하지 않았거나 동시행동으로 했음을 나타내어 근소한 수준이지만 한국 학생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행위자비율뿐만 아니라 행위자평균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00%에 가까운 행위자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미국은 84.1%를 보이는데, 본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관련해 보면 평일의 학습시간이 전혀 없는 점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생활시간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연간 2회(3, 9월) 시간조사를 실시하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조사대상을 달리하면서 연중 계속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라도 평일 중에 방학, 공휴일 등으로 학습시간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결석, 질병, 사고 등으로 학습시간이 없을 가능성은 양국이 유사하다. 양국의 조사방법에서 오는 차이를 감안할 때 전체 평균시간 외에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비교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고등학생의 전체평균 학습시간에 비하여 행위자평균시간의 차이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시간 29분의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한·미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에서는 한국 학생의 행위자비율이 18.5%이고 행위자평균시간은 28분인데 비해 미국 학생의 행위자비율은 68.3%이고 행위자평균시간은 1시간 25분으로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학생이 한국 학생에 비해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도 3.7배 많았고 가사노동을 한 평균시간도 3배 이상 많았으며 양국 학생간의 행위자평균시간 차이는 57분이었다.

수업을 위한 노동시간의 경우 행위자비율은 한국 0.9%, 미국 13.0%로 미국이 14배 이상 더 많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행위자평균시간은 각각 2시간 53분, 3시간 12분으로 미국이 19분만 더 많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여가시간을 세부활동별로 보면, 미디어이용의 행위자비율은 한국 53.9%, 미국 82.7%로 나타나 한국은 절반 이상, 미

국은 3/4 이상의 학생이 평일에 미디어를 이용하며,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1시간 4분, 미국 2시간 54분으로 미국이 1시간 50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고등학생의 교제활동은 행위자비율뿐 아니라 행위자평균시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행위자비율은 한국 93.1%, 미국 56.3%로 한국이 36.8% 더 높는데 비해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52분, 미국 1시간 40분으로 행위자평균시간은 미국이 4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이 평일에 교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한국보다 적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보다 장시간 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은 한국 20.6%에 39분, 미국 29.3%에 2시간 39분으로 미국이 행위자 비율에서는 8.7%만 더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행위자평균시간은 2시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행위자평균시간의 차이에서 양국 학생이 참여하는 스포츠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오후시간에 방과후 활동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비율에 있어 양국간 가장 큰 비율의 차이를 보인 활동이 참여봉사활동이다. 한국의 참여자비율은 0.2%로 극소수인데 비해 미국은 27.9%로 한국보다 140배 정도 더 많은 참여비율을 보였고 행위자평균시간도 한국 15분, 미국 1시간 7분으로 미국 학생의 봉사활동시간이 52배 더 많았다. 종교활동은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에서 양국이 상반된 관계를 보였는데 행위자비율은 한국 0.3%, 미국 2.4%로 미국이 더 높았으나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78분, 미국 48분으로 한국이 30분 더 많았다. 여가활동 중 행위자평균시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유일한 활동이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요일

<Table 5>에서 일요일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대분류 중심으로 보면, 필수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이 양국 모두 100%로 동일한 점은 평일과 같다. 의무생활시간에서는 행위자비율이 한국 95.3%, 미국 88.5%로 학습, 가사노동, 노동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6.8%p 더 많다. 의무생활시간의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이 미국보다 1시간 56분 더 많다. 일요일에는 여가시간의 행위자비율이 평일과 달리 양국 모두 100%를 보이고,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6시간 51분, 미국 8시간 5분으로 한국이 1시간 14분 더 적지만 이러한 차이는 평일의 차이(3시간 36분)보다 반 이상 감소한 양이다.

세부활동별로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무생활시간 중 학습시간의 경우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에서 양국간 큰 격차를 보인다. 행위자비율은 한국은

Table 5. Participation Rates in Activities and Participant Average Time Spent on Activities (Sundays) (Unit: %, Minute)

| Activity | Korea | | U.S. | | Difference (Korea-U.S.) | |
|----------------------|-------|------|-------|------|-------------------------|------|
| | Rate | Mean | Rate | Mean | Rate | Mean |
| Necessary | 100.0 | 719 | 100.0 | 776 | 0.0 | -57 |
| Sleeping | 100.0 | 541 | 100.0 | 668 | 0.0 | -127 |
| Eating/Drinking | 100.0 | 95 | 96.5 | 66 | +3.5 | +29 |
| Other Personal Care | 99.5 | 83 | 88.5 | 51 | +11.0 | +32 |
| Obligation | 95.3 | 324 | 88.5 | 208 | +6.8 | +116 |
| Study | 84.9 | 319 | 38.1 | 143 | +46.8 | +176 |
| Household Work | 52.7 | 62 | 73.5 | 122 | -20.8 | -60 |
| Work | 1.9 | 296 | 13.3 | 302 | -11.4 | -6 |
| Leisure | 100.0 | 411 | 100.0 | 485 | 0.0 | -74 |
| Media | 92.2 | 180 | 88.5 | 224 | +3.7 | -44 |
| Social activities | 73.3 | 70 | 54.9 | 136 | +18.4 | -66 |
| Hobbies | 82.5 | 139 | 34.5 | 131 | +48.0 | +8 |
| Sports | 25.5 | 173 | 32.7 | 165 | -7.2 | +8 |
| Volunteer activities | 0.5 | 400 | 31.0 | 107 | -30.5 | +293 |
| Religious activities | 21.0 | 161 | 25.7 | 141 | -4.7 | +20 |
| Other leisure | 10.4 | 87 | 44.2 | 54 | -33.8 | +33 |
| Etc | 66.4 | 24 | 22.1 | 88 | +44.3 | -64 |

84.9%로 8할 이상이 참여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38.1%로 참여율이 4할에 미치지 못한다. 행위자평균시간도 한국 5시간 24분, 미국 2시간 23분으로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배 이상(2시간 56분) 더 많다. 평일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학습시간이지만 한국 학생의 8할 이상이 일요일에도 평균 5시간 이상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의 가사노동 행위자비율(52.7%)이 평일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만 미국 학생(73.5%)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20.8%p 더 낮고, 행위자평균시간도 평일에 비해 40분이 증가한 1시간 2분이지만 미국 학생(2시간 2분)에 비해서는 1시간 더 적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평일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한국이 미국에 비해 행위자비율은 1/7에 불과하지만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4시간 56분, 미국 5시간 2분으로 근소한 차이만 나타내었다. 노동을 한 학생의 비율이 평일과 일요일 모두 한국은 2% 미만으로 낮는데 비해 미국은 13%로 높아 양국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일을 하는 경우 노동시간은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별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양국 모두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증가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된 여가활동시간은 미디어이용, 취미활동, 스

포츠활동, 참여봉사, 종교활동 시간이다. 미디어이용의 경우 한국은 92.2%의 행위자비율과 3시간의 행위자평균시간을 보여 대다수 학생들이 미디어활동을 하고, 평일에 비해 행위자비율이 38.3%p, 행위자평균시간이 1시간 56분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행위자비율 88.5%, 행위자평균시간 3시간 44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5.8%p, 50분 증가하여 한국보다 증가된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취미활동의 경우 양국간 행위자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나 행위자평균시간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한국 학생은 행위자비율 82.5%, 행위자평균시간 2시간 19분이고 미국 학생은 각각 34.5%, 2시간 11분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각각 48.0%p, 8분 더 많게 나타났다. 스포츠를 한 학생의 비율 및 평균시간은 한국 25.5%, 2시간 53분, 미국 32.7%, 2시간 45분으로 행위자비율은 미국 학생이 7.2%p 더 많은데 비해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 학생이 8분 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학생의 경우 스포츠의 행위자평균시간이 평일에 비해 2시간 14분이나 대폭 증가된 것이다. 한국의 참여봉사활동 행위자비율은 0.5%로 평일(0.2%)보다는 증가하였으나 31.0%의 행위자비율을 보이는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이한 점은 행위자평균시간이 한국의 경우 6시간 40분으로 미국의 1시간 47분

보다 4시간 53분 더 많은 것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극히 낮지만 봉사하는 학생의 봉사시간은 매우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종교활동 행위자비율은 한국 21.0%, 미국 25.7%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4.7%p 더 많지만 행위자평균시간은 한국이 미국보다 20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종교활동도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그 시간이 미국 학생보다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적인 생활은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습으로 보내고 2시간 정도의 여가 중 주로 하는 활동은 교제, 미디어사용 및 취미활동이며, 가사노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적고 참여하는 시간도 많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9시간으로 증가하고 학습시간은 4시간 반 정도로 감소하며 여가시간은 7시간 정도로 증가하는데 일요일의 증가된 여가시간은 주로 미디어, 취미, 교제활동에 사용되고 참여봉사시간은 2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고등학생과 비교할 때 한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배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생활시간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으로 대분류할 때 평일 및 일요일 모두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필수생활시간(평일 및 일요일 각각 58분씩)과 여가시간(평일 3시간 30분, 일요일 1시간 12분)은 더 적고 의무생활시간(평일 4시간 24분, 일요일 2시간 5분)은 더 많다.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생활영역별 부조화가 두드러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김외숙 등, 2005) 고등학생의 경우 영역별 부조화의 정도가 성인보다 훨씬 심한 수준이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은 평일 6시간 41분의 적은 수면을 취하며 일요일에는 수면시간이 9시간 1분으로 증가하지만 모든 요일에 수면시간이 미국 학생보다 2시간 정도 적다.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에 비해 수면은 2시간 정도 적게 자면서 식사 및 기타 개인관리에 30분씩 더 사용하는 시간사용방식은 한·미 가족의 시간사용 연구(Lee et al., 2002),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김기현 등, 2009)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Lee et al., 2002; 김외숙 등, 2005)에서 밝혀진 점과 유사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특히 적은 미국인의 식사시간이나 외관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체면문화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12시간 6분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고등학생(6시간 26분)의 1.8배 수준이다. 일요일에는 학습시간이 평일의 37.3%인 4시간 31분으로 감소하지만 이는 미국 학생(54분)의 5배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가사노동시간은 미국 학생이 한국보다 11.6배(평일)~2.7배(일요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고등학생은 의무활동 중 학습에 많이 편중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지나친 학습시간 편중은 결과적으로 적은 여가시간(평일 2시간 12분, 일요일 6시간 52분)으로 이어진다. 평일 평균 30분 이상을 사용하는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취미활동에 한정되며, 일요일에 여가시간이 증가하여도 주로 미디어, 취미, 교제활동에 사용된다. 미국과 비교하여 일요일에 스포츠, 자원봉사 및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훨씬 낮지만 행위자평균시간은 더 많은 특징이 있다.

다섯째,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에 비해 시간사용에 있어 요일별 차이가 크다. 요일에 따라 시간사용방식이 다른 점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을 비교할 때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 요일별 차이가 더욱 심하다.

이상과 같은 한국 학생의 시간사용상의 특징은 한국 사회의 생활문화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다양한 문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수는 있다. 미국 고등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진 한국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상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시간의 학습시간이다. 생활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시간의 경우 성인의 장시간 노동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을 본분으로 하는 학생으로서 학습시간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9년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읽기 2~4위, 수학 3~6위, 과학 4~7위를 차지해 핀란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시간 학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가 항상 강한 정관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장시간 학습시간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5~24세 학습시간의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 4시간 55분, 미국 2시간 50분, 영국 50분, 핀란드 1시간 48분인데 핀란드의 경우 한국보다 매우 적은 학습시간이지만 학업 최상위 국가로 분류되어 학업시간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가 다양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김기현 등, 2009). 더구나 청소년기에는 지식

습득 외에 다양한 역량의 개발이 필요한데 국제교육협의회(IEA)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권일남·최창욱, 2011)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 다방면의 역량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부족한 수면시간이다. 수면시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리적 시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 생활시간이다. 미국수면재단(NSF)이 적정수면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성인 7~8시간, 청소년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수면시간이 적정수면시간에 크게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수면은 생활의 필수요소로서 신체적 발달 및 기억과 학습,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면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 수면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수면건강 캠페인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수면건강프로그램의 보급·확산을 도모한 것(머니투데이, 2011)도 그 예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수면부족은 여전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수면권확보는 피상적인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부족한 여가시간이다.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별 조화로운 시간사용이 필요하다. 한국 고등학생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가시간도 크게 부족하고 여가시간에 참여하는 활동도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 여가활동은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권태로부터 해방시키며 자기개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친구 및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체력단련과 사회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의 심신단련에 중요하고,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격도야와 바람직한 성장에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김외숙·한경미, 2010).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1996년부터 학생자원봉사가 제도화되어 봉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 참여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과 함께 봉사하는 생활이 일상생활문화가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가사노동시간의 부족이다. 미국 학생과 비교했을 때 지금껏 낮은 한국 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은 입시와 학업성취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실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가사참여는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기술을 습득하여 생활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기영·김외숙, 2009) 고등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사노동참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특히 남학생의 경우 참여율이 더욱 낮은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Oh, 2010) 청소년기의 가사참여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가사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 구분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성 있는 시간일지 원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을 미국과 비교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등학생의 생활세계를 시간량으로 정밀하게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고등학생이 건강에 필수적인 수준의 수면을 취하면서 학습 외에 노동과 가사노동에도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참여를 통해 현재의 삶을 즐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책은 청소년 본인의 시간 관리에서부터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나 노동시장구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현재 20개 국가의 시간조사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의 Database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도 통합되어 보다 편리하게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주제의 국제비교연구가 활성화되기 바란다.

REFERENCE

- 권일남·최창욱(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승미(2005).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통계청.
- 김외숙·한경미(2010). **여가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머니투데이(2011). 잠 못드는 청소년들, 15~19세 수면시간 가장 짧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

- &no=2011111418138234422&outlink=1
- 이기영 · 김외숙(2009). **가사노동과 시간관리(1개정판)**.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Asher, B. A. & Anat, O.(2002). Time for time use studies: studying the daily activities of children, *Childhood*, 9(2), 225-248.
- Choi, N. S. & You, S. Y.(2002).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olescen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House work, leisure, extracurricular lesson. *Journal of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6(1), 1-16.
- Cogle, F. L., Tasker, C. E. & Morton, D. G.(1982). Adolescent time use in household work. *Adolescence*, 17, 451.
- Fuligni, A. J. & Stevenson, H. W.(1995).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3), 830-842.
- Gager, C. T., Cooney, T. M., Call, K. T.(1999).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on teenage girls' and boys' household labor. *Center for Research on Child Wellbeing Working paper*, 98(1), 1-25.
- Kalenkoski, C. M., & Pabilonia, S. W.(2009). Time to work or time to play: The effect of student employment on homework, sleep, and screen time. IZA Discussion Paper No. 4666, 1-36.
- Kang, I. J. & Kim, H. Y.(2005). Time use and satisfaction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Jeju Island. *Journal of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9(4), 1-19.
- Kim, S. H.(1994). A study on time use in college students. **고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24-52.
- Kim, Y. S. & Kim, J. H.(2000). An analysis of time use in college students. *Kyungsung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1(2), 389-404.
- Lee, J. S. & Cho, H. J.(1999). The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3), 111-125.
- Lee, K. Y., Lee, Y. S., Kim, O. S. & Cho, H. K.(1996). A comparison of the time use of urban husbands and their wive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45-161.
- Lee, Y. S., Lee, K. Y., Kim, O. S., Cho, H. K., Ju, I. S., Zick, C.D. & Lee, Y. G.(2002). A comparison of time use between Korean and The USA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3), 139-156.
- Na, Y. J., Hwang, J. S., Lee, E. H., Koh, S. J. & Park, S. H.(2005). Internet us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life content and typ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2), 15-28.
- Neumark, D. & Joyce, M.(2001). Evaluating school-to-work programs using the new NLS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6(4), 666-702.
- Oh, M. S.(2005a). A study on everyday life in Korean students. Oh et al., *Life Time and Everyday Life in Korean Society I : Life Course Approach*, 한국학중앙연구원. 1-49.
- Oh, M. S.(2005b). A study on time use in Korean college students. Park et al., *Life Time and Everyday Life in Korean Society II: Issue in Everyday Life*,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81.
- Oh, M. S.(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time use of Korean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0(4), 299-330.
- Park, J. I., Park, C. U., Seo, H. J. & Yeom, Y. S.(2010).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2), 121-154.
- Porterfield, S. L., & Winkler, A. E.(2007). Teen time use and parental education: Evidence from the CPS, MTF, and ATIS. *Monthly Labor Review*, 130(5), 37-56.
- Shanahan, J. J. & Flaherty, B. P.(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

접수일 : 2012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2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8월 05일